

아이들과 함께 연극·음악에 '풍덩'

시원한 문화 피서 떠나요

‘시원한 문화 피서 떠나요.’ 아이들이 방학을 맞는 이번 주는 여름 휴가 계획을 짜는 가족들이 많을 듯. 놀이공원과 해수욕장 등을 찾는 것도 좋지만 올 여름엔 ‘문화 휴가’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실내 공연장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탁 트인 야외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또 다른 감동을 준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찾아보면 좋은 문화 축제를 소개한다.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각 축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극의 모든 것

‘전국우수마당극제전(www.mtfm.net)’은 세계 각국의 유명 관대들이 한 데 모이는 축제다. 목포 유달산 자락 유달 예술촌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마당극 ‘아이고 아이구’ ‘복어가 끓이는 해장국’ 등과 브라질의 자전적 관대, 중국의 변경과 줄타기 등 세계 각국 관대들의 신명난 한편 축제가 벌어진다.



거창국제연극제에서 공연되는 루마니아 극단 '피그말리온'의 '코믹 오페라'.

한 작품들이 공연된다. ‘손속의 어머니’, ‘경숙이, 경숙 아버지’,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등 국내외의 작품 35편이 관객들을 만난다.

춘천에서는 연극제와 인형극제가 함께 열린다. 춘천국제연극제(www.cif.or.kr)는 모두 80여회의 공연이 열리는 춘천인형극장과 육림랜드 일원에서 열리는 ‘춘천인형극제(www.cobau.com)’에서는 미국 애니메이션 서스펜디드의 ‘후버마리오네트’ 등 7편이 공연된다.

▲음악에 빠져봐요
강원도 대관령 정삼(음경·창평)에서는 ‘Visionary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4회 대관령 국제음악제(www.gmmfs.com)’가 열린다. 지난해 수해로 행사 일정이 대폭 축소돼 아쉬움을 줬던 터라 올해 행사를 기대하는 클래식 팬들이 많다.

말고 있으며 바하, 베토벤, 드뷔시, 쇠베르크의 작품이 연주되며 아도 파리소, 정명화, 세종솔로이스츠 등 40여명의 거장들이 참여한다.

‘사천세계타악축제(www.sacheonpercussion.org)’는 삼천포 대교 공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세계 세트드럼의 일인자 미국의 토마스 랭과 브라질의 삼바 타악 브라질의 두두투투 등 9개국 11개 팀이 참여하며 세계타악기 전시 및 체험 등이 주 프로그램이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www.jimff.or.kr)는 청중호반에서 펼쳐지는 휴양형 영화제다. 행사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 ‘음악’과 ‘영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영화제다. 음악 관련 영화 50여편이 상영되며 이승환, 정원영밴드 등이 출연하는 공연과 야외 영화제가 어우러진 ‘원 섬머 나잇’ 프로그램 등이 인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차범석 '산불' 고향서 활활

국립극단 연극 '산불' 2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

목포 출신 극작가 고(故) 차범석 선생의 ‘산불’은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산불’은 최근 ‘맘마미아’의 제작사인 신시뮤지컬컴퍼니가 세계적인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과 손잡고 ‘댄싱 새도우’라는 작품으로 재탄생,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중이다.

국립극단은 연극 ‘산불’을 차선생의 고향인 목포 무대에 올린다. 22일 오후 3시30분, 7시30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연극 ‘산불’은 한국 전쟁 직후 소백산맥의 한 두메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을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전쟁이 한창인 때, 과부들만 사는 산골마을에 규복이라는 한 사내가 숨어든다. 규복은 자신의 집 뒤 대밭에 숨겨두던 절레는 정을 통하여 애절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월이 역시 규복과 관계를 갖는다.

‘위기의 여자’ 등으로 유명한 극단 산울림 대표 임영웅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강부자·곽명화·권복순씨 등이 출연한다.

1955년 ‘밀주’로 등단한 차범석 선생은 ‘활화산’ ‘화살의 숲’ 등 90여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문예진흥원장, 대한민국 예술인 회장을 역임했다. 문의 061-270-84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 왜 일본소설에 열광하는가?

신세대 작가들이 분석한 '소설 日流'

“90년대 이후 새로운 소비주체의 등장이라는 사회학적 맥락이 일본 소설의 열풍과 맞물려 있다.”(강동호)

교보문고에 따르면 작년 일본 소설은 시장점유율 31%를 기록하며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한국소설(23%)을 추월했다. 일본소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3년 15%에서 2004~2005년 23%로 매년 급성장 추세다. 왜 국내 독자들은 이처럼 일본소설에 열광하는가?

신세대 평론가 강동호(23)씨는 인천문화재단이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비평지 ‘플랫폼’ 7~8월호 특집 기사 ‘한국소설시장 속의 외국문학’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작품과 독자 간 관계의 총체적 변화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풀이한다.

강씨는 “일본소설에 탐닉하는 현 독자층은 과거 세계문학 전집이나 한국 거장들의 작품을 읽는 것을 기

본 교양으로 생각했던 독자들과는 분명 다른 주제”라며 “이들은 거대 담론의 해체를 경험하고 정치사에 가려진 일상사를 발견한 개인적 주제”라고 설명한다.

“광고와 패션, 영화 등을 통해 현대적 감수성을 기르며 신선하고 자극적인 사건을 찾아 끊임없이 유목하는 주제, 그것이 바로 우리시대 문학의 주 향유층인 20~30대 독자들을 해석하는 키워드라 하는 것이다.

강씨는 “일본문학이 위치하는 지점은 본적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에 전략적으로 열어놓은 장르의 공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소설은 이야기로서, 문학으로서, 그리고 상품으로서 현대 독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설가 정이현(35)씨는 이 잡지에 기고한 ‘동시대적 감수성을 향하여’라는 글을 통해 “일본소설이 가지고 있는 독자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한국 출판사들의 무분별한 일본소설 수입과 같은 ‘문화외직’ 원인들”을 지적한다. /연필뉴스

“미술시장 과열 속 작가는 부익부 빈익빈”

20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토론회

미술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하 민예총),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 등 진보적 예술단체들이 ‘미술시장의 질주와 창작’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오는 20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미술시장의 성장이 창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제로 최병식 경희대 교수, 전시기획자 윤태건씨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또 작가 겸 민미협 지역네트워크위원장인 배인석씨의 사회로 경매회사와 화랑 관계자, 작가 임옥상씨, 미술잡지 아트인컬처 발행인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미술시장의 수혜자는 ‘블루칩’이라고 이름 붙여진 일부 인기작가들에 국한된다고 지적하면서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창작 환경도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미술계와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민예총 관계자는 “예술시장과 문화산업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한 반길 일이지만 실제 다수의 창작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 쉼이 있다”며 “주변의 작가가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작가는 이웃이 로또복권에 당첨했다는 소식을 듣는 서민과 비슷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여성리더 양성
‘꿈을 찾는 소녀들의...’ 회원 모집

광주여성민우회(대표 안진·전진숙)는 여성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꿈을 찾는 소녀들의 페미니즘’ 회원을 모집한다.

지역에서 여성 리더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23~26일까지 민우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마인드 맵과 그림 그리기 등을 통해 ‘나의 꿈은 무엇일까요’ 등에 대해 알아보고 광주시의회 이명자 의원을 방문, 이야기를 듣고 광주시의회 회도 둘러본다. 참가비 3만원. 문의 062-529-038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만해축전 고교생 백일장

강원일보사, 12일 백담사 만해마을서

강원일보사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함께 다음달 12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만해마을에서 ‘제9회 만해축전 전국고교생백일장’을 개최한다.

전국의 고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이번달 31일까지 우편 또는 인터넷(www.kwnews.co.kr)으로 접수를 마감해야 한다. 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시조·산문 등 3개 부문에서 경쟁이 이뤄지며 3개 부문 통틀어 대상 1명에게는 대통령상과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입상자는 대학 전형에서 특별입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상금은 850만원. 문의 033-258-1380~2.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약국사거리 ☎예약1544-0600	엔터시네마 충장로 57가 ☎ 228-2700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뒷편)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화관뒷편)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제일시네마 충장로 37가 ♥ARS 전화예매 227-1960♥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금,토(2일간)심야상영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탑덱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주차이면 인터넷 예매 문의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텔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